For God so loved

Paraguay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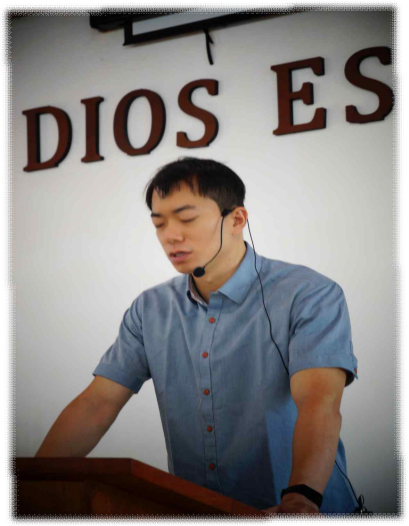
인디언마을 이야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욘 4 : 11

2020 첫번째 소식









첫 예배 그리고 성찬식

2020년 새해, 인디언마을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배로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 예배는 특별히 성찬식을 진행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예배자들을 보며
올해 이 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인디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아플땐 선교사를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루는 무리지어 노는 아이들 속에서 눈병이 의심되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엄마를 통해 아이가 8일정도 밤에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인디언마을을 찾아 아이에게 약을 넣어주고 기도하며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셔’

며칠 뒤, 아이가 밝게 빛나는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목사님!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향해 웃어주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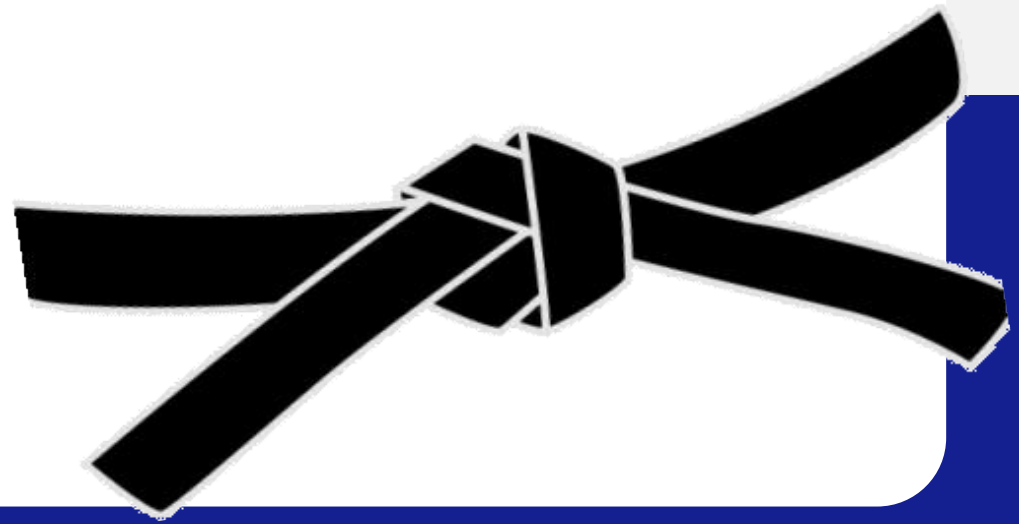






기대하며 준비하는 태권도수업

인디언마을 학교는 2월21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부터 인디언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태권도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디언다음세대친구들에게 태권도가 가진 철학과 긍정적요소들을 가르치며 이들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태권도사역을 통해 파라과이 사회에 **‘인디언들의 잠재력’** 을 알리고,
인디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보여주어 **‘선교적존재’**로써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품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하리킴의 첫 등교

곧 만3세가 되는 사랑하는 딸 하리가 현지학교 ICI(Interactive Christian Institute) 유치원과정에 입학했습니다.
ICI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지역에서도 명성이 좋은 학교입니다.
비록 선생님·친구들과 다른 언어로 소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곳에서 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하리는 학교생활을 즐기며 재미있어 합니다.
하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 선교의 본질·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부어주시도록
- 인디언마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많은 인디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 태권도수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필요한 지혜·여건·물품 채워주시도록
- 하리가 새로운 환경(학교)에 잘 적응하고, 선생님·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스페인어 한마디

‘Llamame!’ 전화해!
야마메!

함께 동역해 주세요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920-982396-144
예금주 GMS김진건/여지현